

미술·박물관서 ‘찐’ K-컬처를 만나다

4~7일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광주 DJ센터...346개 부스 운영
전시·체험·디지털 콘텐츠 등 다채
‘까치와 호랑이’ 등 뭇즈도 선보여

K컬처는 이제 더 이상 K팝이나 K드라마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일상과 역사, 전통과 예술을 아우르는 문화적 흐름으로 세계에 퍼져 나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다. 문화의 가치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공간을 넘어, 새로운 창작과 체험의 장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제2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 서구 지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며, 한국박물관협회, 광주시관광공사 등이 주관한다.

올해 주제는 ‘변화하는 사회와 박물관·미술관의 도전’. 전통의 계승, 교육과 창, 디지털 전환 등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박물관의 미래 방향을 탐색한다. 행사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광주박물관 등 국립기관은 물론 사립관 57곳을 포함해 총 146개 기관이 346개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는 박물관의 역할을 단순히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참여 기관들은 기념품, 전시, 체험, 교육, 디지털 콘텐츠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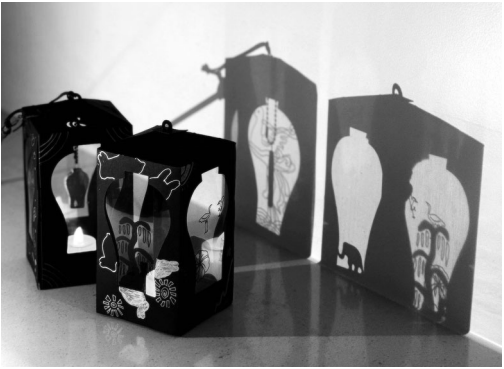
우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최근 품론 대란을 일으킨 ‘까치와 호랑이’ 상품을 매일 100개 한정으로 판매하며, 그 외 ‘뭇즈’ 기념품도 함께 선보인다. 박람회 종료 시점에는 ‘뭇즈’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이후 박물관 기념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만큼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의 이중섭, 은지화 등의 작품을 VR과 영상으로 선보이며, 국립중앙박물관은 AI 기반 문화자원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이동형 어린이박물관 ‘마법의 방’과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현장을 채운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제2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오는 4~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진다. 대담미술관이 진행하는 '커피캔버스 그리기' 모습. <대담미술관 제공>



국립광주박물관이 진행하는 체험프로그램 '아시아, 도자에 꿈을 담다'(왼쪽)와 '달항아리 마카롱'.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다양하다. 첫날 담양 대담미술관의 ‘커피캔버스 그리기’, 국립광주박물관의 ‘달항아리 마카롱 만들기’, 해남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의 ‘해양생물 부채 꾸미기’ 등은 아이들에게 예술적 상상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5일 구례 한국압화 박물관의 ‘뽕! 뽕! 압화 체험’은 자연과 꽃을 예술로 연결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6일과 7일에는 국립광주박물관의 ‘아시아, 도자의 꿈을 담다’, 조선대학교 박물관의 ‘사방등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져 관람객의 손끝에서 창작의 즐거움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28편의 디지털 실감 영상작품이 전시돼 관람객은 오감을 자극하는 색다른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낡은 인형을 전문가가 수리해 주는 체험, AI를 활용한 사주·궁합 풀이, 캘리그라피 시연과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박람회 현장은 단

순 관람을 넘어 일상과 연결된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확장된다.

한편 올해 박람회는 전문가 교류의 장으로서 위상도 강화했다. 4일 국제 포럼에서는 일본 박물관 협회장과 국내 전문가들이 AI·플랫폼·브랜드·공동체 등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5일에는 뮤지엄 콘서트가 열려 시 낭송과 남도 판소리 공연이 어우러지고, 6일에는 채종기 은암 미술관장, 임양수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장이 ‘관장과의 대화’ 토크 콘서트를 통해 관람객과 자유롭게 소통한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K컬처 시대,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예술의 도시 파리에 간 ‘지역 공예품’

‘파리 메종&오브제’ 광주 공예문화상품 공동 전시홍보관 운영



파리 메종&오브제에 출품하는 다자기의 도자제품 ‘차곡차곡’.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지역 공예품이 ‘2025 파리 메종&오브제’에 출품돼 눈길을 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김용모)은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 노르빌팡트 전시장에서 열리는 ‘파리 메종&오브제’에 광주 공예문화상품 공동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

K-컬처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역 공예문화상품이 세계 최대 라이프스타일 박람회에서 선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지난 1995년 창설된 ‘파리 메종&오브제’는 매년 140여개국 2300여 브랜드가 참여하며,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바이어가 찾을 만큼 정평이 나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도 메종&오브제에 참가해 100여 건의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을 비롯

해 2억원 상당의 계약·판매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올해까지 3년간 박람회에 참가한 디자인진흥원은 공예 공동관을 조성했으며 현지 독립부스 공동관에서는 도자를 비롯해 섬유, 한지분야 등 60여종의 상품을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진흥원은 공모를 매개로 더자기플러스, 에이앤즈협동조합, 한경희조형연구소, 수다도자기, 연재 등 5개 공예공방을 선정, 메종&오브제 참가 등을 지원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김용모 원장은 “디자인진흥원은 지역 공예문화상품들이 해외에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 목수들의 ‘특별한 축제’

목공 설계·제작 등 경험...광주문화재단 11일까지 참가자 모집

어린이들이 직접 목수가 되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특별한 축제



지난 ‘어린이목수축제’의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목공 설계와 제작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상상력·창의성·협업의 가치를 배우도록 기획된 참여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 인원은 광주지역 초등학교 4~6학년 40명(선착순)과 중학생 선배 목수 10명으로,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참가 어린이는 반드시 제작하고 싶은 작품의 스케치를 제출해야 한다.

축제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잔디밭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큐브’. 집이나 성, 혹은 환상의 세계 등 어린이가 상상한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참가 어린이들이 제출한 스케치를 중심으로 제작이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본 행사에 앞서 사전 워크숍이 9월 27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참가 어린이들은 설계도 작성, 조형물 시뮬레이션, 안전교육은 물론 못질·톱질 등 기초 목공 기술을 배우게 된다.

운영진은 박성완 총감독을 중심으로 노여운·박기태·백상욱·오성현 예술가가 모듬별 활동을 이끌고, 윤문석·전민준·임은혜·문창환 작가가 작품 완성도를 지원한다.

/장혜원 기자 hey1@

어린이도슨트들의 위풍당당 소감

광주시립미술관, 도슨트 교육강좌 수료 학생 활동 보고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최근 ‘2025 어린이도슨트 활동 보고회’를 성료했다.

이번 보고회는 ‘디자인 스페이스 유니버스’ 전시와 연계해 8월 한 달간 진행했으며 어린이도슨트 교육강좌를 수료한 학생이 참여했다.

본 보고회에서는 어린이도슨트들의 활동성과

발표, 활동소감 발표, 수료증 수여,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참여 어린이도슨트 박지은(12)양은 “관람객이 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줄 때 정말 뿌듯했다”며 “앞으로 미술관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